

2027년도 입영대상(1차) 공군 일반병 공개 선발

- 입영월별 공개 전산 추첨방식으로 3,662명 선발
- 총 44,226명 지원, 평균 12.5대 1 경쟁률

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9월 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에 입영할 공군 일반병 3,662명(전체 계획인원의 약 40%)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선발했다.

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, 참석자 중 3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,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2027년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은 8월, 10월 총 2회로 나누어 모집한다. 8월 공군 일반병 모집에 총 44,226명이 지원하였고, 접수최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3,662명 선발하였으며, 전체 계획인원의 약 60%는 10월 중 선발할 예정이다.

1차 선발 결과는 8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공개하며, 선발자에게는 알림톡(SMS)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. 1차 선발자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월 14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선발 제외*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10월 23일 최종 선발자가 확정된다.

* 선발제외 대상 : 1~4급 현역병 입영대상이 아닌 경우, 징역 또는 금고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을 선고받은 사람, 최종선발 발표 7일 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등

홍소영 병무청장은 “공군 일반병 공개 추첨 선발방식 도입이 병역의무자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미래 설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다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	책임자	과 장	이상용 (042-481-2713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정 (042-481-2720)